

---

第10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8年7月11日(土) 午前10時

---

議事日程

1.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2. 常任委員會委員長選舉의件
- 

附議된案件

1.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 5面
  2. 議事日程變更動議案(崔明玉議員 外 10人 發議) ... 9面
  3. 常任委員會委員長選舉의件 ... 11面
- 

(11時 03分 開議)

○議長 金箕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2차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원만한 회의진행과 교섭단체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04分 會議中止)

(12時 23分 繼續開議)

○議長 金箕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崔鍾德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崔鍾德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李禮子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李禮子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禮子 議員;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議長님과 議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회의 의원 李禮子입니다.

우리가 엇그제 7월 9일 우리議會가 개원되는 날 제가 이곳까지 왔다가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마 다 알게 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논의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나름대로 그 날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議員님들께 부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서울시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저의 감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날 이議會에 도착하기 위해서 문앞에 차를 세우고, 그 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산을 받고 이 현관에 이르는 계단에 수 분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느냐 하면, 제가 올라올 수가 없었고 제가 아는 얼굴

의 議員님이 오시면 제가 도움을 받아서 같이 올라오려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 분을 그 비를 맞으면서 거기 서 있으면서 이것이 내가 서울시議員으로서 議會로부터 받는 첫번째 대접이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앞으로 議員으로서 이 議會 건물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건물의 역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가 무슨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 아닙니다. 헌정사 이래로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수십년 동안 드나들던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아직도 장애자를 위한 파킹장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해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법을 결정하는 이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市나 국가의 행정의 뒤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이 건물이 증명하는 사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議員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 저는 유럽에 여러 해 동안 저 혼자 가서 살다 왔고 일하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행은 한 번씩들 해 보셨겠죠. 거기의 건물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백년의 역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구석구석에 인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보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議會 건물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래된 건물 탓도 아니고 돈이 없는 탓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과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議員님들이 같이 우리가 서울시민의 행정을 위해서 일해 가실 때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건축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법으로 제정됐고, 또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고쳐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는 우선 먼저 정부 주도하에 모든 건물들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펴 나갈 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볼 때 동정의 시선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대한민국에 400만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행정을 펴 나갈 때 이것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한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4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마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초선의원으로 여러 선배의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울 것을 기대하면서, 또 아울러 우리 서울시가 특별히 장애인의 복지에 관심에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箕英; 수고하셨습니다. 事務處長께서는 검토하셔서 불편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12時 31分)

○議長 金箕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常任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방금 金吉原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金吉原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原 議員; 존경하는 金箕英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議會가 좀더 서울 천백만 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또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그리고 모든 권리를 우리가 몸소 지고 나온 議員으로서 좀더 효율적이고 또 바람직한 의회상을 갖기 위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市議員 金吉原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일째 맞는 우리 會議가 장장 2시간 반만에 속개된 것을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습니까? 진정한 이 나라의 기초, 또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이 지역에 뿌리내려야 될 우리이기 때문입

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러한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인데 이토록 議會가 2시간 반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이렇게 늦게 속개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여러 시민에게 보여주는 참 잘못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고 이제 좀더 국민복지를 향해서 나가고 또한 정치적인 발전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된 지 벌써 10여 년이 가까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정치행태를 볼 때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선임과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정말 우리의 서울시민을 위한 가장 일선에서 일해야 될 그런 분야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물론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상의하는 그런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議長團이 이 議會의 얼굴이라면 상임위원회는, 또 常任委員長은 팔과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 분들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으려면 조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한 서로 인격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런데도 그러한 기간이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하면서 나를 지지해 달라, 정말 이것을 제가 보고 있을 때 넌센스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진화된 조국을 위해 정말 정치적인 선진화를 또한 갈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자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작태가 과거에 있었던 밀실정치의 재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 제안이 정말 잘 되었으면 박수를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박수를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 한 번 쳐줄 수 있겠습니까?

○議長 金箕英; 박수는 칠 수 없습니다.

○金吉原 議員; 마음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마음 깊이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議長團께 강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꼭 시간을 지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발전을 시간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의 소감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箕英;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배부된 의원 명단 중 내무위원회의 金永俊議員이 김명준의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정정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  
다.

金永俊議員이 김명준의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니  
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崔明玉議員 외 10인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  
경하자는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동의안을 의석에 배  
부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崔明玉議員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玉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서울  
중구 제1선거구에서 출마해서 당선을 한 국회의회의 소속의 초  
선의원 崔明玉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의사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위원장 선임의 건은 추후 우리 議會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해서 동료의원들의 열한 분의 서명을  
받아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문사항은 제106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2차 本會議  
의사일정 제2항 常任委員會 委員長 選舉의 件을 제3차 本會  
議 98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 때 처리토록 변경할 것  
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서울特別市 제5대 議會 常任  
委員會 구성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돼서 의사일정변  
경의 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  
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본 2차 회의가 있는 당일, 오늘  
개회 직전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명단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많은 특정 후보들이 특정분과의委員長으로 출마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유인물들을 사전에 인쇄를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議會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으로서도 별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번 5대에서 시정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본 5대 議會는 54명이나 되는 우리 초선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선의원들에게 위원장선거에 관한 검증의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그럴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여러분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 2. 議事日程變更動議案(崔明玉議員 外 10人 發議)

(12時 42分)

○議長 金箕英; 그러면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으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崔明玉議員 外 10人이 제출한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崔明玉議員 外 10人이 제출한 議事日程變更動議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變更動議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27명, 반대 33명, 기권 35명으로 崔明玉議員 外 10人이 제출한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방금 議事日程變更動議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常任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地方自治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常任委員會 委員은 本會議 議決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 정수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동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견을 들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명단

(뒤에 실음)

---

### 3. 常任委員會委員長選舉의件

(12時 48分)

○議長 金箕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常任委員會 委員長選舉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 관한條例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常任委員會 委員長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議長.副議長 選舉의 예에 준하여 本會議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常任委員長 選舉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상임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씩만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명기명식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會議規則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새정치국민회의 4명, 한나라당 2명 등 총 6명으로 하되, 各黨 議員姓名의 가나다순에 따라 金光洙議員, 金奇德議員, 金吉原議員, 金洛淳議員, 金鎬一議員, 安秉昭議員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玄錫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임된 各 委員會別 委員 중에서 各 常任委員長으로 선출하실 의원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의 해당위원란에 각각 한 분씩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의석의 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2時 54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議員呼名)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3時 08分 投票終了)

○議長 金箕英; 투표 안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만 남으시고 개표를 하는 동안 각 당협의회사무실에 약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와 집계는 진행되는 동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수를 계산한바, 10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函 點檢)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計 票)

개표를 하는 동안 각 당협의회사무실에 약간의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겠지만 監票委員 外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개표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참아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金種求議員 38표, 申垞植議員 26표, 金

吉原議員 15표, 무효 2표, 金永俊議員 14표, 呂鼎九議員 1표, 崔忠敏議員 1표, 閔庚燁議員 2표, 宋台京議員 1표, 金成浩議員 1표, 李政恩議員 1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議員이 없으므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郭順英議員 41표, 鄭韓植議員 33표, 李亮漢議員 14표, 무효 1표, 張夏雲議員 3표, 吳世根議員 3표, 梁敬淑議員 2표, 金洙福議員 2표, 金成奎議員 1표, 鄭鉉均議員 1표, 李금라議員 1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議員이 없으므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生活環境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金鍾來議員 63표, 車星煥議員 12표, 李成浩議員 9표, 金在實議員 4표, 宋美花議員 4표, 金恩京議員 2표, 柳辰永議員 1표, 金鎬一議員 1표, 金判吉議員 1표, 무효 5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金鍾來議員이 生活環境委員會 委員長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洪承采議員 46표, 劉俊相議員 38표, 崔鍾根議員 7표, 李善宰議員 5표, 李禮子議員 4표, 金寬洙議員 1표, 林浩植議員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議員이 없으므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崔鍾德議員 60표, 李喆鎬議員 40표, 李容富議員 1표, 무효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崔鍾德議員이 水資源管理委員會 委員長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教育委員會 委員長選舉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李英順議員 51표, 李康珍議員 30표, 許光泰議員 12표, 劉大運議員 3표, 盧永奭議員 1표, 李東秦議員 1표, 金奇德議員 1표, 李海植議員 1표, 羅鍾文議員 1표, 무효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議員이 없으므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建設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閔鍊植議員 57표, 李康玉議員 10표, 鄭在天議員 10표, 朴洙桓議員 9표, 金魯珍議員 8표, 崔榮壽議員 4표, 洪淳喆議員 1표, 任東淳議員 1표, 金俊明議員 1표, 무효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閔鍊植議員이 建設委員會 委員長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都市整備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具哲會議員 40표, 鄭泰宗議員 25표, 金周喆議員 24표, 高溶振議員 4표, 金明洙議員 3표, 任安淳議員 1표, 金洛淳議員 3표, 무효 2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交通委員會 委員長選舉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2표 중 朴謙洙議員 61표, 金玉源議員 25표, 李敬愛議員 4표, 朱世晚議員 3표, 金喜甲議員 2표, 安秉昭議員 1표, 金聖泰議員 1표, 金平城議員 1표, 무효 4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朴謙洙議員이 交通委員會 委員長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장이 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2차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투표는 조금 전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內務委員長, 財務經濟委員長, 保健社會委員長, 文化教育委員長, 都市整備委員長에 대하여만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場內騷亂)

의원 여러분,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洪淳喆議員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洪淳喆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淳喆 議員;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대 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이전에 의장단 선거에 우리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議會의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 당은 서울시 천이백만 시민을 앞에 두고 우리 한나라당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총회를 통



해서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다수당의 여러분을 믿고 우리는 침묵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야간의 정치협상 아닌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우리 상임위원회 선거에 분명히 약속을 받고 두 석도 아닌 한 석에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도 전체 의원 수의 20%에 해당되는 의원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을 비롯하여 의장단은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민주주의는 소수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지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분명한 의장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喆鎬 議員;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議長 金箕英; 투표는 방금 전에 실시한 요령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면 1분만 李喆鎬議員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李喆鎬 議員; 제가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들어 주세요. 瑞草區 출신 한나라당 李喆鎬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고 현재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지방자치가 이처럼 부작용과 가능성을 보인 준비기간이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제2기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완

전히 자리잡는 숙성의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서울시議會는 소모적인 대립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식의 20%에 달하는 야당을 인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건전하고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다수의식의 숫자논리로만 議會를 지배하려는 음모가 있어 본의원은 서울시議會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交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를 보면 전체 상임위원회가 10개이고 그 위원회 정수는 10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한나라당 의원만으로도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상임위원장도 한나라당에 2명이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석을 빌미로 한 여당 집행부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特別市議會交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案을 위반하는 민주시대의 대의명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당의원 여러분, 지금 國會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식물국회니 국회 퇴출론이니 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議會가 國會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지방의회도 퇴출대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양새 있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제5대 의회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의무라고 사료되어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원은 상임위원장 1석 배정과 특위위

원장 2명으로 합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충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그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여당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순리에 따라 원칙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직 취임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빕니다.

서울市議會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과 여러 여당 의원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약속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약속대로 조율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말 외환위기이후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나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서울시정을 능률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이나 시장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본분을 다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는데 우리 다 같이 협력을 기울여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저의 의사를 다소나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말 정회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적어도 20명이라고 하는 야당위원이 모양새 없이 퇴장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일단 이 기회를 넘어간다고는 생각합니다.

문득 이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고전 2행시입니다.

감옥의 창살 밖을 감옥 안에 두 사람의 죄수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지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창공에 뜬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딱 2구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각을 그렇게도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흙을 내려다보는 것은 좌절과 실망과 체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희망입니다. 별은 어둠을 비춥니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별이 돼야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천백만 시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내려다봐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의 충정어린 뜻과 우리 한나라당의 충정어린 뜻을 정말 보아주셔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議員 있음)

○議長 金箕英;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존경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의 믿음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걸음씩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회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의원 여러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정회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좀 이해를 하여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4時 41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議長 金箕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규정 이외의 발언은 일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吉原議員, 金洛淳議員, 金鎬一議員, 安秉昭議員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말씀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市議會 議長은 천백만의 얼굴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투표했는데…….」 하는 議員 있음)

말씀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무고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다소 상호간의 의견이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자제되어야 하고 품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場內騷亂)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洙議員님, 金奇德議員님, 金吉原議員님, 金洛淳議員님, 金鎬一議員님, 安秉昭議員님 감표위원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그것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말씀하세요.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金吉原議員님 나오셨습니까? 金洛淳議員님…….

투표는 방금 전에 실시한 요령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玄錫胤;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5時 19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議員呼名)

(場內騷亂)

(議事擔當官 議員呼名 中斷)

○議長 金箕英; 호명하세요, 육성으로라도 호명하세요.

○議事擔當官 玄錫胤; 계속하여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議員呼名 繼續)

(場內騷亂)

(15時 35分 投票中斷)

○議長 金箕英;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결선투표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전까지 충분히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선투표가 아닙니다. 2차투표입니다. 다음에 결선투표 전에 그 때 정회를 잠시 선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차투표입니다.

(단상에서 ○李亮漢議員 2차 투표 때 과반수 나와버리면 결선투표는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議長님, 안 그렇습니까? 2차 투표 때 과반수가 나와버리면 결선투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場內騷亂)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議長 金箕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되는데 자꾸 하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議員 있음)

(「빨리빨리 해결하고 가자 이말이에요」 하는 議員 있음)

(「빨리빨리 좀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金箕英 議長, 崔鍾午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崔鍾午; 議長님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간에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53分 會議中止)

(23時 31分 繼續開議)



○議長 金箕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常任委員長 選출과정에서 다소간 의견이 달라 회의진행이 늦어졌습니다만 상호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각 대표의원간 합의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대표의원간 합의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市議會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7월 11일 常任委員會 委員長 選출과정에서 빚어진 의회공전상태를 종결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금번 臨時會 기간 중 구성 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을 한나라측에서 맡는데 합의한다. 단, 常任委員會 중 1석의 委員長이 한나라당에서 맡게 되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은 새정치국민회의측에서 맡는 것으로 한다. 금번 委員長 선거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의회운영에 상호 타협과 양보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투표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방금 전에 실시한 요령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3時 33分 投票繼續)

(23時 48分 投票終了)

○議長 金箕英; 투표를 안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마쳤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수를 계산한바, 97명입니다.

議員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는 散會하고 차수를 변경, 자정이 지난후 7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일단 여기서 散會한 후 잠시후 자정이 지난 뒤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23時 56分 散會)

---

○出席議員 104人

|     |     |     |     |
|-----|-----|-----|-----|
| 李成浩 | 梁敬淑 | 崔明玉 | 金吉原 |
| 吳尙俊 | 張鎭國 | 柳辰永 | 羅鍾文 |
| 吳世根 | 洪承采 | 任東淳 | 趙相勳 |
| 金泰潤 | 崔鍾德 | 劉俊相 | 朴正哲 |
| 崔鍾根 | 鄭泰宗 | 趙養鎬 | 金俊明 |
| 尹汝亨 | 朴來雨 | 朴洙桓 | 崔鍾午 |
| 張夏雲 | 李敬愛 | 崔忠敏 | 朴謙洙 |

|     |     |     |     |
|-----|-----|-----|-----|
| 金興植 | 劉大運 | 金判吉 | 李東秦 |
| 金基星 | 任安淳 | 高溶振 | 金恩京 |
| 鄭在天 | 金星煥 | 林浩植 | 金永俊 |
| 宋美花 | 金成浩 | 朱世晚 | 李康玉 |
| 金玉源 | 申炯植 | 李善宰 | 柳基洪 |
| 金寬洙 | 金奇德 | 金喜甲 | 金在實 |
| 許光泰 | 金洛淳 | 金鍾來 | 鄭鉉均 |
| 盧永奭 | 金平城 | 呂鼎九 | 李英順 |
| 咸泰浩 | 金明洙 | 金箕英 | 具哲會 |
| 金周喆 | 任元彬 | 徐興善 | 金種求 |
| 金光洙 | 崔榮壽 | 鄭韓植 | 河海鎮 |
| 閔鍊植 | 金洙福 | 李載震 | 李康珍 |
| 李聲九 | 趙成大 | 韓鳳洙 | 李喆鎬 |
| 安秉昭 | 洪淳喆 | 李亮漢 | 黃乙秀 |
| 閔庚燁 | 李容富 | 金鎬一 | 郭順英 |
| 金成奎 | 車星煥 | 이금라 | 李海植 |
| 金魯珍 | 林東奎 | 李禮子 | 金聖泰 |
| 宋台京 | 金善會 | 李健相 | 李松竹 |
| 吉基演 | 李政恩 | 車元甲 | 韓春子 |